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3월 20일 ~ 2022년 3월 26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충실한 법씨를 골라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고구마 육묘상 설치와 옥수수 조기재배에 신경 쓰고, 봄철 강풍과 황사에 따른 시설하우스 관리, 과수원 저온피해 방지대책, 환절기 가축 및 축사 환경관리에 힘쓴다.

1. 벼농사

- 종자는 균일한 파종을 위해 소금가리기 작업 전에 탈망작업을 실시하고 종자량은 논에 소모되는 육묘상자를 고려하여 약 10%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고, 시판 상토는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결과가 첨부된 우수한 상토를 선택한다.
- 법씨 소독은 약제침지소독법과 온탕소독법이 있으며, 약제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법씨발아기를 사용하여 30℃에 48시간 담가 소독을 하고, 온탕소독법은 60℃물 100L에 벼 종자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한 후 냉수에 10분 이상 담가둔다.
(온탕소독 할 법씨는 사전 침지 및 염수선 금지)

2. 밭작물

- 보통재배 적기인 5월 상순~중순에 고구마 순을 심으려면 3월 하순~4월 상순경 양열온상에 씨고구마를 묻어야하며, 묘상의 폭은 120~130cm로 하면 묘상관리 및 채묘작업이 용이하고, 묘상간 간격은 30cm가 적당하다.
- 고구마 싹은 머리 쪽에서 많이 나오므로 머리 부분이 북쪽방향이 되도록 향하게 하고, 배 부분보다 등 부분이 많이 나오므로 배열할 때 등 부분을 위로 배 부분을 아래쪽에 닿도록 묻어준다.
- 옥수수의 조기재배(비닐터널재배) 옮겨 심는 시기는 4월 상순경이며 터널에 옮겨 심을 때는 터널설치 작업이 쉽도록 이랑너비 50cm에 포기사이를 25cm로 심는다.

3. 채 소

- 봄철 강풍 발생 시 하우스 비닐이 날리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비닐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환풍기 가동으로 골조와 비닐을 밀착시켜 바람피해를 예방한다.
- 봄철 황사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작물 생육 장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황사예보 모니터링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세척할 물 확보와 급수시설 고장유무 점검 및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한다.
- 시설 수박은 밤낮의 기온차가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℃ 밑으로 떨어지면 수꽃의 꽃밥 터짐이 좋지 않고 활력이 떨어져 기형과 발생이 증가하므로 최소 15℃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된다

4. 과 수

- 묘목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시 심어야 하는데 늦어도 3월 중·하순까지는 심어야 한다.
-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시설인 경우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원을 확보하고, 과일 나무 위 4~5m높이로 방상팬을 설치하거나 연소법을 이용할 경우 재료를 과원에 미리 준비해 둔다.
- 과수의 꽃피는 시기는 3월 이후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상기상에 따른 수분·수정의 불량이 우려될 경우 인공수분을 통해 적극적인 결실관리 필요하다.

5. 축 산

-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축 및 축사 환경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.
- 봄철 황사로 인한 가축 호흡기 및 눈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황사 발생 시 가축관리 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막는다.
- 아직까지 옷거름을 주지 않은 논뒷그루 사료작물이나 목초지 포장은 서둘러 주어 수확량을 늘리고 담근먹이용 옥수수수는 4월 중에 파종을 마쳐야 수량이 많으므로 종자와 비료 등을 미리 준비한다.